향기로운 제물이 되심

에베소서 5: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예물과 제물]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교훈하였다.

1.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가장 고귀한 사랑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요 3:16). 예수님의 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심과 그의 탄생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가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유화제물(즉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증거했다(요일 4:9-10).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이 죽음과 지옥 형벌 아래 있던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증거한 것이다.

요한복음 10:11에 보면, 예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이며 그것은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의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하셨다.

요한복음 15:13에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 사역을 이루신 그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가장 고상한 사랑이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14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 곧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었다.

2.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심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죽음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행위이었다고 증거한다. 그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향기로운 제물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시대에 제사들이 상징했던 죽음이었다. 그는 자신을 버리셔서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히브리서 10:12도,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증거했다.

그런데 이 속죄의 제물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되었다. 레위기 1:9는 구약의 제사들 중 하나인 번제의 규례를 설명하면서,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말했다. 거기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유희의 향기’라는 뜻이다. 구약시대의 다섯 가지 제사들은 모두 다 이런 뜻이 있었다. 이것은 성경의 속죄 개념을 보인다. 속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는 것이었다.

물론, 성경의 속죄 개념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유희의 뜻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을 담당한다는 뜻과 값으로 산다는 뜻과 하나님과 화목케 한다는 뜻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죽음은 이런 고귀한 뜻들이 있다.

3. 그 사랑을 본받으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죽음, 곧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사랑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죄 많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고 그의 명령과 뜻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것이다.